

“70년 묻혀 있던 마지막 장...전후 성찰 드러내”

김정훈 교수, 국내 첫 번역·발굴 내용 소개
마쓰다 도키코 '땅밑의 사람들' 미공개 원고
학살 이후 서사 첫 확인...추모·기억 확장



확장됐다"고 밝혔다.

일본 작가 마쓰다 도키코의 대표작 '땅밑의 사람들' 미발표 장정이 70년 만에 발견되면서 작품 해석의 방향이 새롭게 열렸다. 이번 발굴 사실을 국내에 알린 김정훈(사진) 전남과학대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장정은 학살 이후를 다루며 작품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자료"라고 29일 밝혔다. 김 교수는 "‘땅밑의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오카 사건 중국인 노동자 학살 장면에서 끝나는 작품으로 이해돼 왔다"며 "이번에 확인된 장정은 기존 결말 이후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곧 작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참상을 고발하는 기록문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 희생자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서사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견된 장정에는 전후 위령제와 희생자 추모 장면이 담겼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장면은 성찰과 기억 복원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원고는 일본 아키타 오다테시 문학기념실에서 발견됐다. 발굴은 오쿠무라 하나코 야마가타 대학교 특임연구원이 광주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참석 이후 자료 탐색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 교수는 "광주에서 열린 심포지움이 연구자에게 자극이 됐다고 본다"며 "귀국 후 문학기념실과 도서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굴은 한일 학술 교류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당 원고는 예자키 준 '마쓰다 도키코 회' 대표를 거쳐 김 교수에게 전달되며 국내에 처음 알려졌다. 발굴된 원고는 본문 45매와 창작 메모 30매 등 총 75매 분량으로, '증장'이자 '제3부'로 표기돼 기존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7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전후 일본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책임과 징용 문제는 민감한 주제였고, 관련 소송과도 맞물려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선인과 중국인 징용 피해를 다룬 르포 형식의 리얼리즘 소설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당시의 현실과 인간의 고뇌를 함께 보여준다"며 "징용 관련 자료가 행정 문서나 증언 중심이지만,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갈등을 함께 드러낸다"며 "이번 증장 발굴은 그러한 기록을 보완하는 새로운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어 "징용 관련 자료는 대부분 행정 문서나 증언 중심이지만,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갈등을 함께 드러낸다"며 "이번 증장 발굴은 그러한 기록을 보완하는 새로운 자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일본 작가가 조선인과 중국인 징용 피해를 다루고, 전후 책임과 기억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전쟁은 끝났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 이번 증장 발굴은 그 기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명진기자



장흥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장흥경찰서는 "최근 장흥읍 일대에서 효성유치원 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유치원생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한 보행 방법 등을 익힌 뒤 중앙로 일대를 행진했다. 특히 아이들은 직접 안전운전과 보행 수칙 준수 등을 알리는 구호를 함차게 외치며 운전자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했으며, 경찰은 행진 구간 앞뒤로 순찰차 에스코트를 지원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켰다. 김경호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국립광주과학관, 호남권지역과학관협의회 성료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호남권지역과학관협의회를 열고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남해양수산과학관, 해남공룡박물관, 국립수목원기상과학관, 국립정호년우센터,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등 총 17개 기관이 참석했다. 2015년 발족한 협의회는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 과학관 협의체로 3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에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순회전시와 전시품 공동 활용, 이동과학차량 지원, 스태프 투어 운영, '2026 호남권 과학페스타' 공동 추진, 홍보제널 다각화, 컨설팅 및 강연 지원 등이다. 이정구 관장은 "호남권 협력망의 중심으로서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보다 실용성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광주시체육회, 김성은 양궁 감독 감사패 전달

김성은 광주은행 테넨양궁단 감독이 광주 양궁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성은 감독은 지난 27일 전국소년체전 양궁 선발전이 열린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감독은 "그동안 함께해 준 광주여자대학교 임직원과 광주양궁협회 선배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양궁에 대한 열정을 변함없이 이어달리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지역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기자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남구 대촌동 복지 거점 개소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남구 외곽 도농복합지역인 대촌동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복지 거점 공간을 문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거점 공간은 2026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고무신'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사랑방' 기능을 수행한다. 또 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조성된 민간과 공공의 복지 정보 전달 역할도 수행한다.

이선미 인애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대촌동 거점 공간 개소는 단순히 공간 하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넘어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밀착형 복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고독사 없는 복지마을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한국농어촌공 영광지사, 청년농업인 소통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영광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영농 초기 겪는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광지사는 올해 새롭게 개정된 2026년 농지은행 사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지 임대 과정 등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충을 나누며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올해 총 187억원 규모의 농지은행 사업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며, 맞춤형 농지 지원과 임대 수탁 사업 등을 통해 영광 지역 청년농업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경훈 영광지사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농업에 흔들림 없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담양군-고흥군 공직자들, 고향사랑 상호기부

담양군은 "최근 지역 간 상생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흥군과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에는 담양군 주민복지과와 고흥군 문화체육과 직원 각각 25명씩 총 50명이 뜻을 모아 동참했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 25만원씩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으며, 특히 양 지자체 공직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선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상호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흥군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운영기반 사례집' 발간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은 "지난 27일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실질적 기반 강화를 위한 '운영기반사례집' 발간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작성·운영되는 연·월간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 운영 내용, 안전관리계획 등을 토대로 구성됐다. 현장 종사자의 실제 운영 사례와 실무 경험을 담아 현장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제작 과정에는 운송회 봉선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박소로 서남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김해미 성곡관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이숙희 서구우성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한해춘 월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이다영 큰콩지역아동센터 생활복



지사가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발간위원장은 김윤덕 서남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맡았다. 최강남 단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장성경찰, '여성일상지킴이' 위촉·간담회

장성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백양마루에서 '2026년 여성일상지킴이' 위촉식·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성군 여성다문화팀, 여성단체, SNS 서포터즈 등 지역사회 구성원 10명으로 꾸려진 지킴이는 앞으로 주민 눈높이에서 치안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범죄 신고 활성화 등을 이끄는 핵심 소통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등 주요 치안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동성 경찰서장은 "여성일상지킴이의 적극적인 조언과 긴밀한 민경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호남대, 제40대 학생 자치기구 연합 출범

호남대학교는 "최근 교내 IT스퀘어 광장에서 제40대 '백(白)'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3개 단과대학 학생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철 총장과 학교 보직자, 총동장회 임원, 광주·전남 총학생회협의회 회장단, 재학생 등이 참석해 학생회 연합 출범식을 축하했다. 이번 출범식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光山구청장 박병규 후보 등 다양한 외부인들이 참석해 학생회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박상철 총장은 축사에서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총학생회가 학생과 대학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욱기자

결혼

▲박철영·엄경화씨 장남 성훈군, 류재수·최미영씨 차녀 달혜(광주도시공사)양=4월4일(토) 오전 11시30분 하우스오브드레드웨딩홀(드래프트 신관) 3층 아벨빈룸(광주 광산구 입방울대도549).